



## 제2주제

---

# 2020 국내 건설시장 전망

##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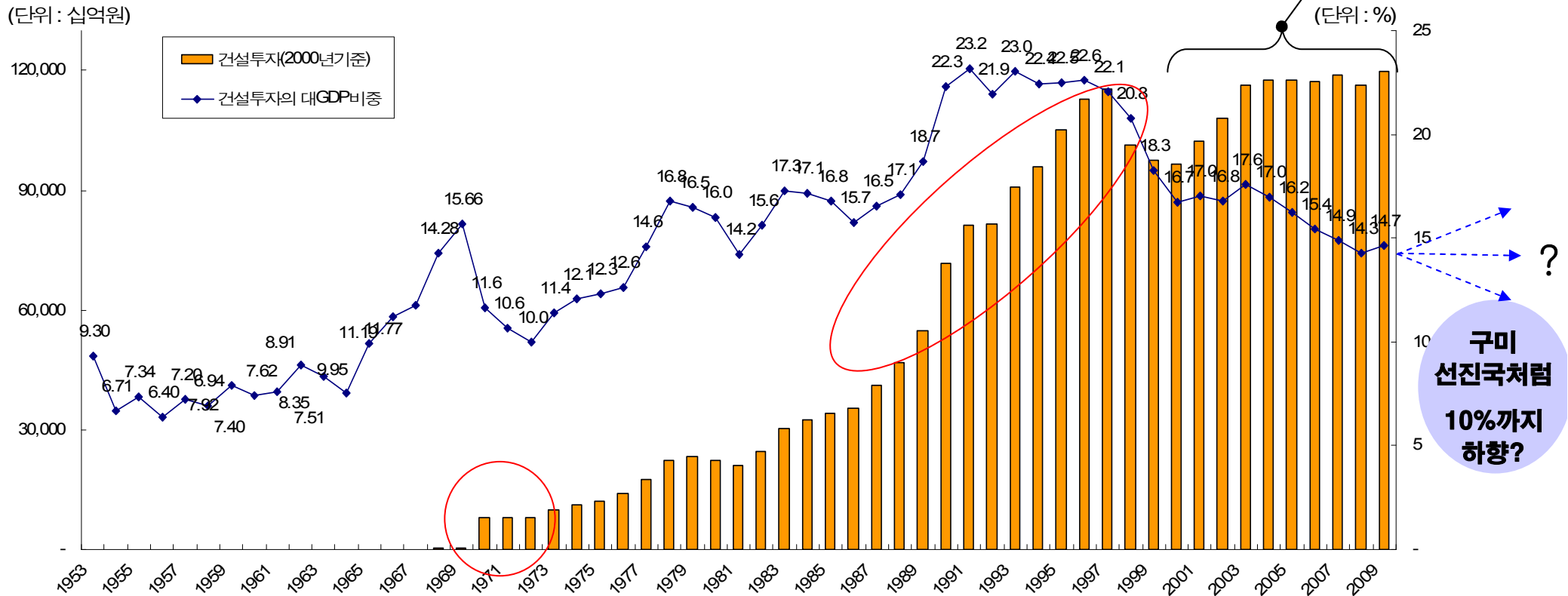


## 주요 내용

1. 국내 건설투자의 변화 추이와 시기별 특징
2.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단계별 건설투자 추이 분석
3.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비중 변화 모델식 도출
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계별 건설투자 변화 특징 분석
5. 모델식과 우리나라의 특성 고려를 통한 최종 전망치 도출
6. 전망의 시사점

## 국내 건설투자의 변화 추이와 시기별 특징

- 1970년 이후 : 건설투자 본격화
- 80년대 후반~외환위기 직전 : 건설투자 급증(GDP대비20%상회)
- 외환위기 이후 : 건설투자 12.4% 급락 → 회복 6년 소요, 이후 건설투자 정체
- 참여정부 시절 : 매년 1%p 가까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하락 → 비중 15% 미달
- 2009년 : 토목투자 급증으로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소폭 상승 → 향후 추이?  
(건설투자 전년비 3.1%증가, GDP성장(0.2%) 기여율 67.5%)



## 국가 경제발전과 건설투자 변화의 연관성 관련 이론

- 국가 경제성장과 건설투자 밀접한 연관
  - 생산활동 위한 공장, 오피스, 물류망 등 사회기반시설 → 경제발전에 필수적
  - 주거용 건축물 역시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양적, 질적 변화
- 관련 이론 : Kuznets, S.(1961), Burns, L. S. & Grebler('77) 등

### Kuznets, S.(1961)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Part IV, Long-Term Trends in Capital Formation Propositions", *Economic Development & Cultural Change, Part II* (July 1961)

- 2차 대전 전후~1957년 34개국 대상 연구 → 일인당 소득과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과 정(+)의 관계 및 2차 함수모형 주장
- 저개발국은 소득수준 낮고 건설투자 매우 미약, 중진국들은 대부분 건설투자 증가율이 GDP 증가율 상회, 급속한 경제성장단계(take-off stage)에는 고정자본투자 수요 급증
- 소득수준변화에 따른 2차 함수 모형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 추이 설명

### Burns, L. S. & Grebler(1977) 등

The Housing of Nations : Analysis and Policy in a comparative Framework, *The MacMillan Press, London.*

- 주택투자와 경제발전단계와의 관계 설명, 개발도상국보다는 중진국의 주택투자가 활발, 선진국 진입하면서 주택투자 감소 경향. 결국 소득과 주택투자수준 역 U자형 관계 제시.
- 저소득국가들 주택보단 산업화 위한 공업용 건축물과 산업기반시설투자 우선 → 경제 어느 정도 성장 후 도시화 및 복지향상 요구증가로 주택투자 증가 → 경제성숙단계에 인구성장을 감소, 주택재고 축적으로 주택투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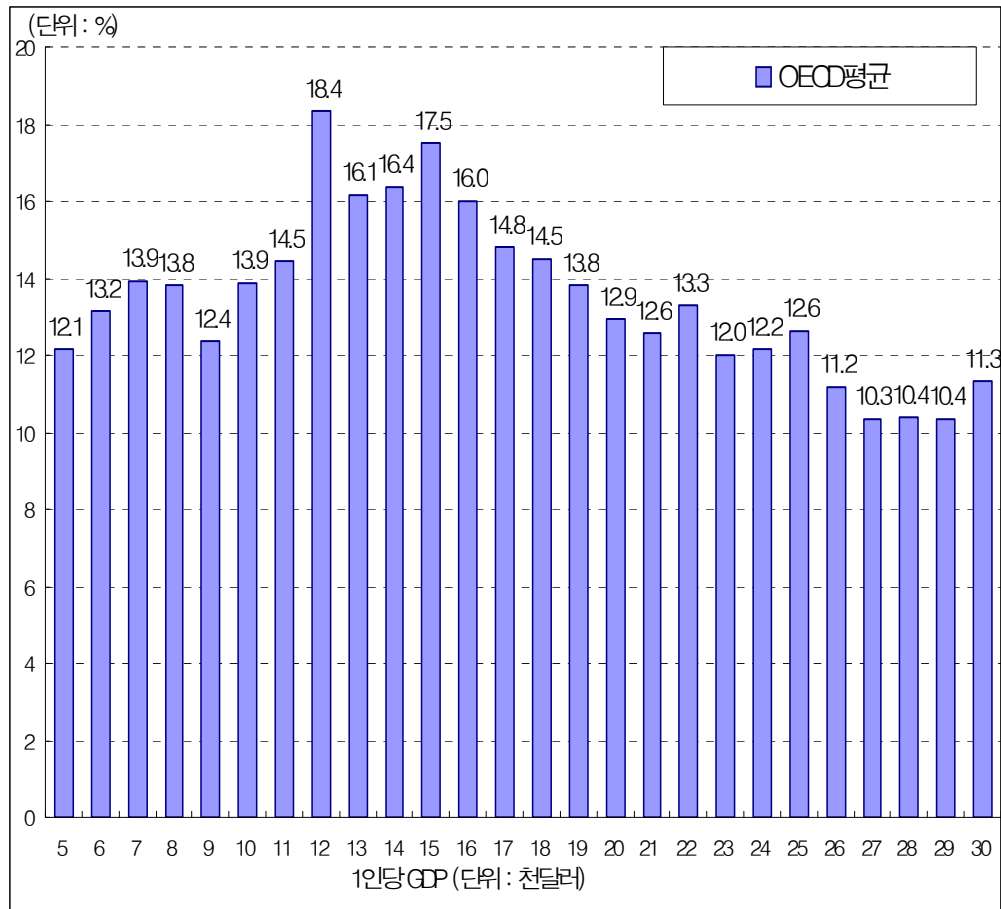
### 국가 경제발전



건설투자 역 U자형  
변화 추이

##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단계별 건설투자 추이 분석

### OECD 국가들의 소득 수준별 건설투자 비중 추이



- 1인당GDP 1만 1~2천달러까지 건설투자 비중 **지속 증가**
- 1인당GDP 1만 1~3천달러 수준에서 건설투자 비중 **최고치**
- 1인당GDP 1만 5천달러 이후 건설투자 비중 **지속 감소**(3만달러에서 소폭 상승)

초기 경제성장 단계 : 경제발전과 동시에  
건설투자 비중 증가

→ 일정 소득수준 이후 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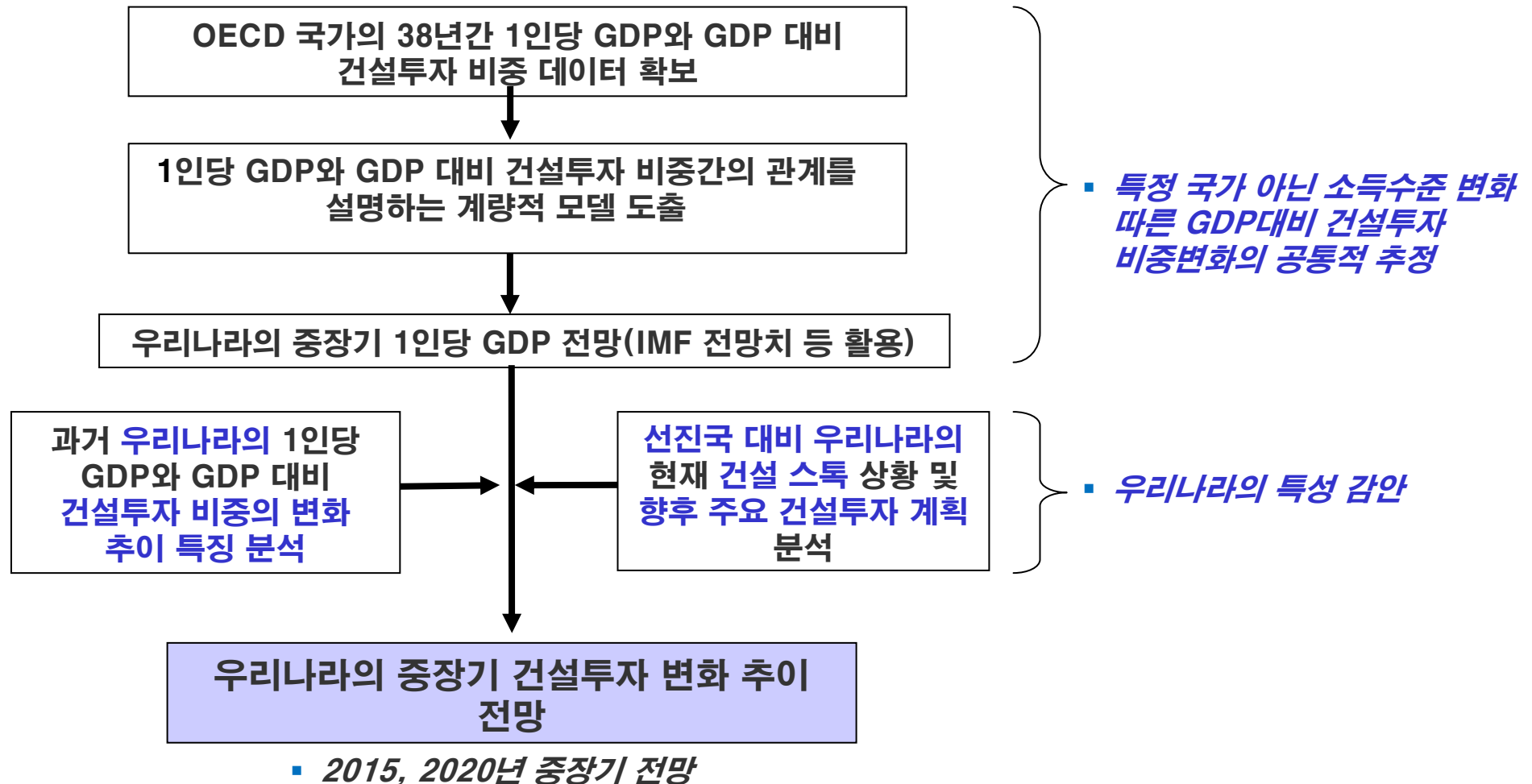


**건설투자 역 U자형  
변화 추이**

주: OECD 국가들의 38년간('70~'07년) 1인당 GDP 데이터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데이터를 소득 수준 구간별 통합(pooling)해 계산한 자료이며 2000년 기준 1인당 실질GDP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70-2007', OECD(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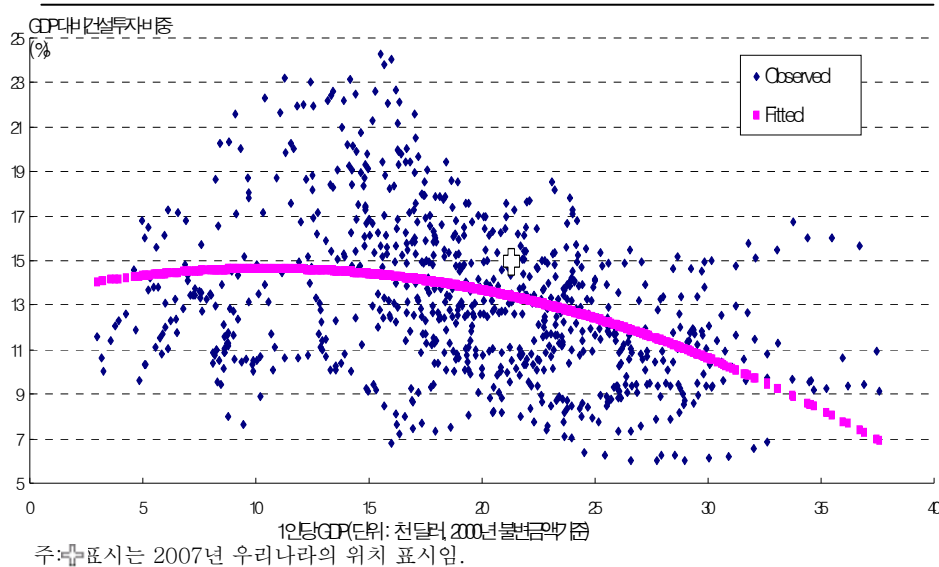
## 국내 건설투자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의 틀(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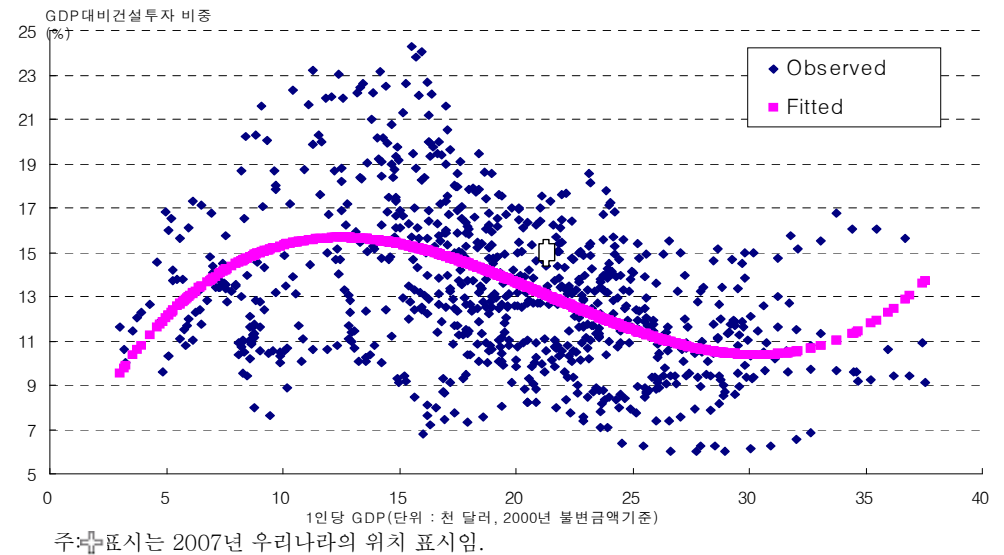
##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비중 변화 모델 도출 결과

- 2차식, 3차식 모두 1인당 GDP 1만 2,3천달러 정도에서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최고치 → 약 15% 비중
- 이후 건설투자 비중 지속 하락 : 3차식의 경우도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까지는 지속 하락 → 10% 소폭 초과
- 1인당 GDP 3만 달러 상회 데이터 부족 → 3만 달러 이후 건설투자 비중 재상승 단정 어려움

2차식 모델



3차식 모델



구분		계수값	t-값
상수		13.4828	20.38226
독립변수	$Y$	0.221324	3.006214
	$Y^2$	-0.01056	-5.30822
R-squared		0.174397	
D.W		1.920895	

구분		계수값	t-값
상수		4.220887	3.995710
독립변수	$Y$	2.123258	9.695691
	$Y^2$	-0.119950	-9.514157
	$Y^3$	0.001867	8.637749
R-squared		0.212408	
D.W		1.940439	



##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 정립 모델실 활용 전망치 초안 도출

### 우리나라의 2014~2020년 1인당 실질 GDP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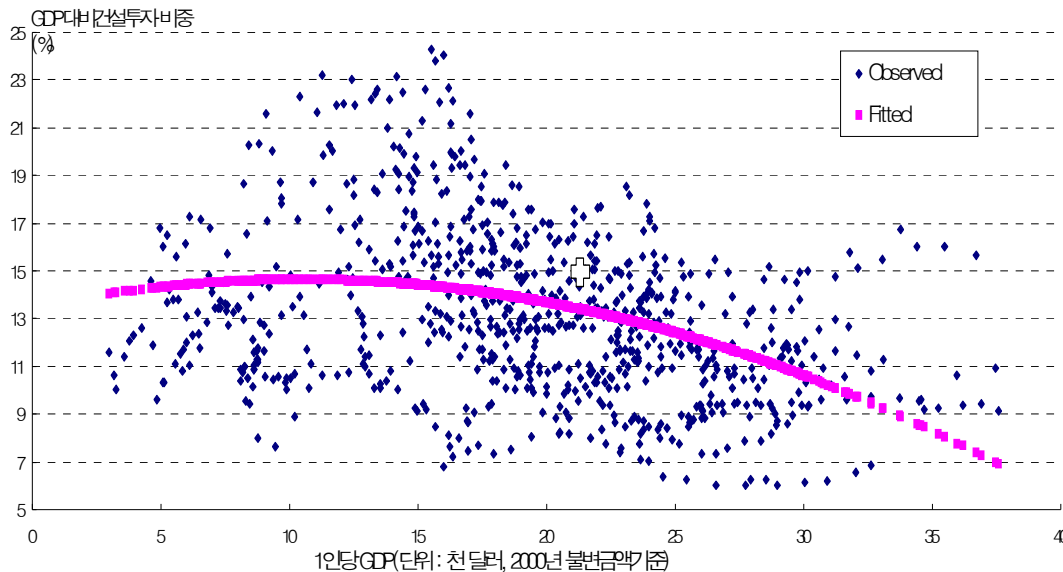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당 실질 GDP	24,620	25,61	26,64	27,726	28,846	30,011	31,224
성장률	3.00	4.04	4.04	4.04	4.04	4.04	4.04

주 : IMF 및 한국장기재정모형상의 전망치 참조

동 전망치는 실질구매력평가기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1인당 GDP 전망치이므로 통상 사용하는 GDP 개념으로는 2019년 보다 약 3~4년 늦게 3만 달러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



### 2차식 모델



### 정립 모델실 활용 전망치 초안

- 1인당 실질GDP 2만5천\$ 달성 **2015년**  
→ 건설투자 비중 **12% 다소 초과**
- 1인당 실질 GDP 3만\$ 달성 **2020년**  
→ 건설투자 비중 **10% 다소 초과**



- 당분간 **현재처럼 정립 모델식보다 상회 가능성 존재?** 또는 **정립 모델식에 급격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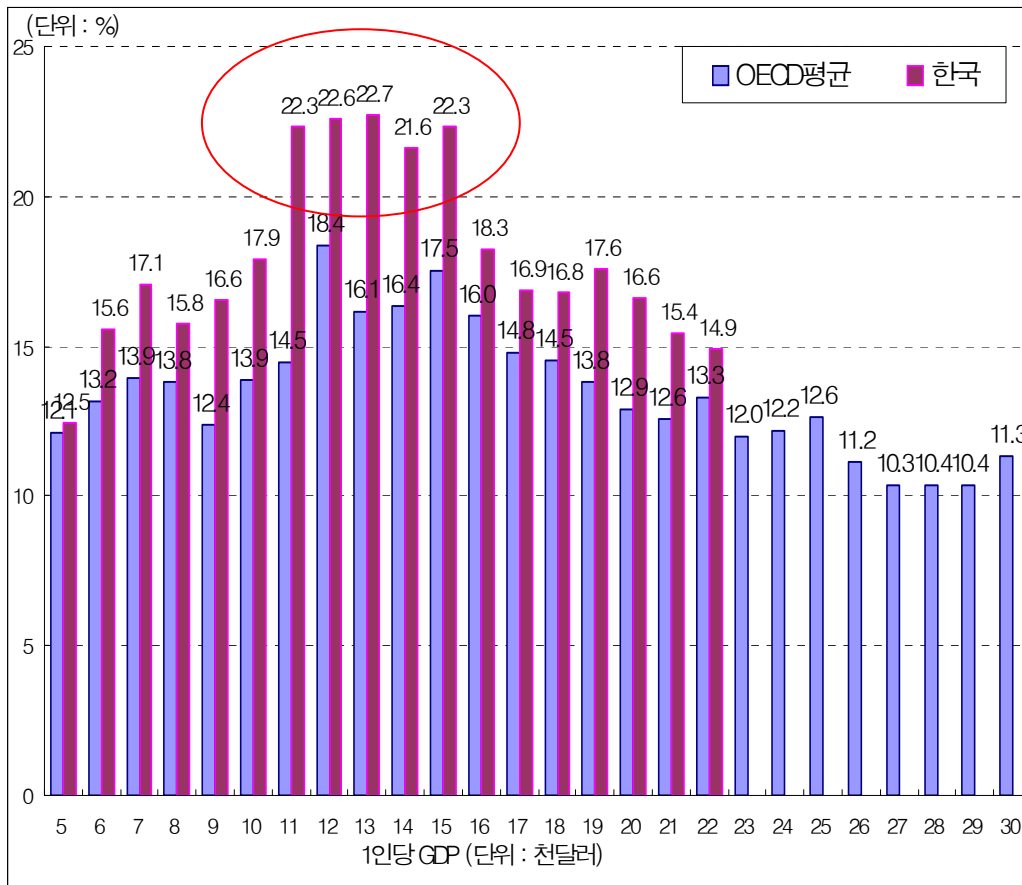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건설투자 변화 특징 분석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계별 건설투자 변화 특징 분석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소득 수준별 건설투자 비중 비교



주: OECD 국가들의 '70~'07년 1인당 GDP 데이터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데이터를 소득 수준 구간별 통합(pooling)해 계산한 자료이며 2000년 기준 1인당 실질GDP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70-2007', OECD(2009)

## 유사점

- 1인당GDP 1만1~3천달러까지 비중 지속 증가
- 비중 정점 소득수준 유사
- 1인당GDP 1만5천달러 이후 비중 지속 감소
- ➔ 역U자형 패턴 유사

## 차이점

- 5천달러 이후 OECD국가보다 비중 지속 상회 (증가 속도 훨씬 급속)
- 특히, 1만~1만5천달러 사이 격차(GAP) 확대
- 1만5천달러 이후 격차 크게 축소(급속 하향)

## 차이 원인

- 6.25전쟁, 70년대부터 고도 압축/급속 성장
- 90년대 주택200만호, SOC시설 급증 영향
- 스톡 축적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급락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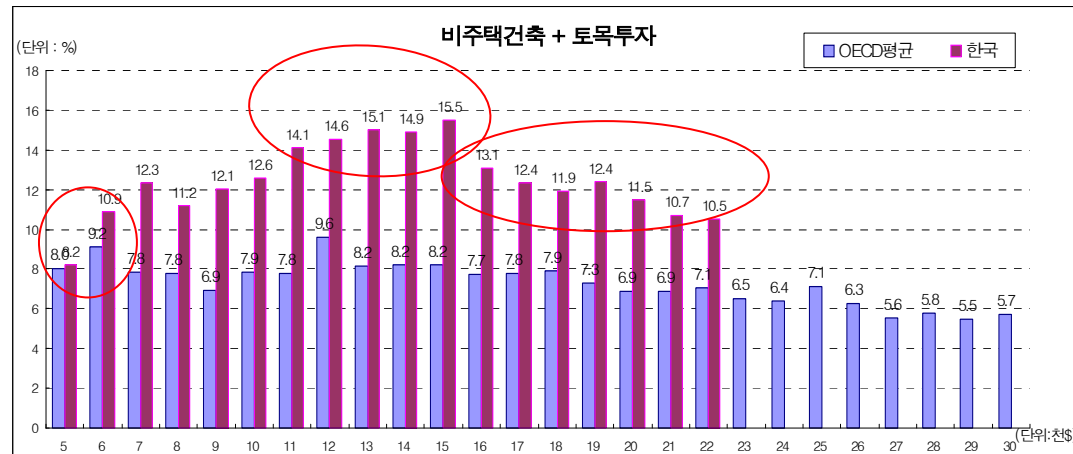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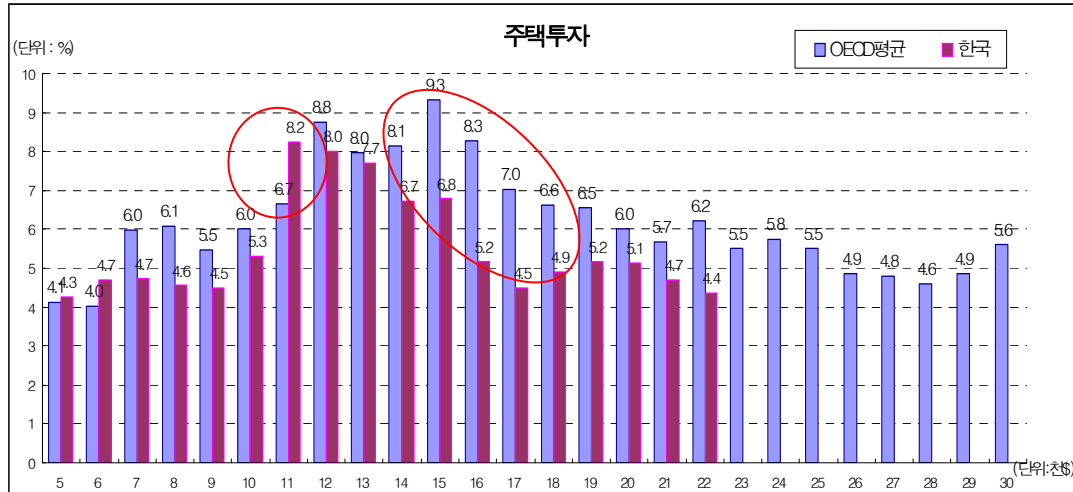
OECD국가와 유사한 소득수준별 향후 역 U자형 변화 추이 예상

단, 외환위기 직후 과도하게 위축→비중감소 속도 조절, 격차 90년대 정도는 아니나 당분간 유지 예상

선진국과 현재 스톡 격차 → 향후 추이변화에 영향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계별 건설투자 변화 특징 분석

## 주택투자 및 비주택투자의 비중 비교



주: OECD 국가들의 '70~'07년 1인당 GDP 데이터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데이터를 소득 수준 구간별 통합(pooling)해 계산한 자료이며 2000년 기준 1인당 실질GDP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70-2007', OECD(2009)

## 우리나라 특징

### 주택투자

- 1만1천달러(90년대초) 제외, OECD평균 하회
- 1만5천달러(외환위기) 직후 격차(Gap) 확대
- 1.8만\$ 이후 격차(Gap)축소, 최근 격차 확대

### 비주택투자

- 5천달러 제외 OECD국가보다 비중 지속 상회 (큰 폭 격차 + 비중 증가 속도 훨씬 급속)
- 특히, 1만~1만5천달러 사이 비중 확대
- 1만5천달러 이후 격차 크게 축소(급속 하향)

### 차이 원인

- 고도 성장기에 SOC, 플랜트 건설에 치중 (Burns, L. S. & Grebler('77) 이론과 부합)



- 주거/비주거 모두 정점 지남→역 U자의 하향 예상
- 당분간 주택투자 비중 급격 하락 가능성 낮음
  - 2신도시, 보금자리주택(9.19 대책 10년간 50만호 유지) → 선진국과 주택투자 비중 격차 축소 예상
- 비주택 투자 향후 완만하게 비중 격차 축소 예상

##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SOC 스톡 비교

- 소득 수준별 비교시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주택 투자 비중 매우 높음(동일 년도 비교시 격차 더 확대)
- 그러나, 소득수준별 SOC 스톡 비교시, 스톡 많이 부족한 편, 1만 달러→2만 달러 스톡 격차 소폭 축소
- ➔ 비주택 투자, 특히 토목투자 비중 감소하되 완만히 감소 전망, OECD국가와 비중 격차도 완만히 축소 전망

1인당 GDP 1만, 2만 달러 시기의 도로 보급률 비교

선진국  
도로보급률  
1만\$시 한국의  
1.16~3.32배  
(평균2.14배)



2만\$시 한국의  
1.12~3.15배  
(평균2.09배)

구분	1인당 GDP 1만달러 도래시		1인당 GDP 2만달러 도래시	
	년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년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한국	2002	1.873 (1.00)	2007	1.949 (1.00)
호주	1985	2.566 (1.37)	1995	2.544 (1.31)
오스트리아	1986	4.915 (2.62)	1990	5.018 (2.57)
덴마크	1985	5.278 (2.82)	1987	5.298 (2.72)
핀란드	1985	2.173 (1.16)	1988	2.18 (1.12)
프랑스	1985	5.018 (2.68)	1990	4.996 (2.56)
독일	1979	3.378 (1.80)	1991	4.47 (2.29)
아일랜드	1989	6.21 (3.32)	1996	6.145 (3.15)
이탈리아	1986	2.983 (1.59)	1991	3.016 (1.55)
일본	1984	5.612 (3.00)	1987	5.462 (2.80)
네덜란드	1986	5.295 (2.83)	1992	4.855 (2.49)
스웨덴	1976	2.333 (1.25)	1987	2.473 (1.27)
영국	1986	3.278 (1.75)	1996	3.707 (1.90)
미국	1979	5.172 (2.76)	1988	4.808 (2.47)
평균		4.006 (2.14)		4.066 (2.09)

주 :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유효도로연장(km) / {국토면적(km<sup>2</sup>) × 인구(천명)}<sup>1/2</sup>  
 유효도로 : 지방도\*1 + 국도\*2 + 고속도로\*8  
 ( )는 도로보급률을 우리나라를 기준(1.00)으로 비교한 것임.  
 교통개발 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투자지표 개발연구" 데이터 재가공 인용

1인당 GDP 1만, 2만 달러 시기의 철도 보급률 비교

선진국  
철도보급률  
1만\$시 한국의  
1.66~4.51배  
(평균2.45배)



2만\$시 한국의  
1.29~3.41배  
(평균1.92배)

구분	1인당 GDP 1만달러 도래시		1인당 GDP 2만달러 도래시	
	년도	국토계수당 철도보급률	년도	국토계수당 철도보급률
한국	2002	0.071 (1.00)	2007	0.095 (1.00)
오스트리아	1986	0.246 (3.46)	1990	0.253 (2.66)
벨기에	1986	0.234 (3.30)	1991	0.231 (2.43)
핀란드	1985	0.154 (2.17)	1989	0.154 (1.62)
프랑스	1985	0.206 (2.90)	1990	0.226 (2.38)
독일	1979	0.251 (3.54)	1991	0.278 (2.93)
아일랜드	1989	0.118 (1.66)	1996	0.123 (1.29)
이탈리아	1986	0.143 (2.01)	1991	0.141 (1.48)
일본	1984	0.140 (1.97)	1987	0.124 (1.31)
룩셈부르크	1985	0.320 (4.51)	1990	0.324 (3.41)
네덜란드	1986	0.129 (1.82)	1992	0.130 (1.37)
노르웨이	1978	0.126 (1.77)	1987	0.131 (1.38)
스웨덴	1976	0.187 (2.63)	1987	0.210 (2.21)
영국	1986	0.144 (2.03)	1996	0.151 (1.59)
미국	1979	0.145 (2.04)	1988	0.171 (1.80)
평균		0.174 (2.45)		0.183 (1.92)

주 : 국토계수당 철도보급률 = 유효철도연장(km) / {국토면적(km<sup>2</sup>) × 인구(천명)}<sup>1/2</sup>  
 유효철도 : 비전철\*1 + 전철\*1.25 + 고속철도\*4  
 ( )는 철도보급률을 우리나라를 기준(1.00)으로 비교한 것임.  
 교통개발 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투자지표 개발연구" 데이터 재가공 인용

## 향후 정부 SOC 투자 계획

- 향후 정부의 SOC 투자 계획상에서도 중기적으로는(2013년까지) 양호한 투자 예상
-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는 비주택 투자 양호할 전망
  -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SOC 투자 연평균 2.0% 증가(25조원 이상 투자)
  -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 사업 2013년까지 투자 양호
  -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세종시, 혁신도시도 2012~13년까지 지속 투자 양호

비주택 투자, 특히 토목투자 비중 감소하되 완만히 감소 전망, OECD국가 대비 높은 격차도 완만히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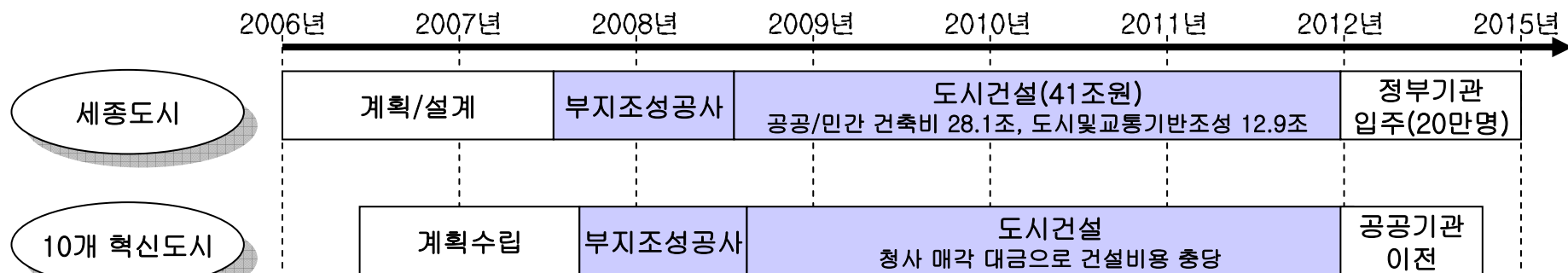
'13년 이후 공공시장 출구전략 필요

향후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계획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09.10발표 '09~2013년 SOC예산 계획 (단위:조원)	24.7 (추경제외)	24.8	25.3	25.9	26.7	2.0%

녹색뉴딜사업  
건설관련  
투자계획

구분	투자 구분	투자 합계	2009년 투자	2010년 투자	2011년 투자	2012년 투자
건설관련 녹색뉴딜 사업 (단위:억원)	국비	292,393	28,220	84,804	104,369	75,000
	지방비	40,683	5,471	13,141	14,334	7,737
	민자	70,368	13,161	21,273	20,874	15,060
	소계	403,444	46,852	119,218	139,577	97,797



주 : 세종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며, 최근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09년 말 세종시 진행공사 총 54건(총공사비 4조3,532억원)에 달할 예상이었으나, 현재 정부청사2단계 등 건축부문 제외하고 총 4조원 규모 공사 진행 중

##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주택스톡 비교

- 소득 수준별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 투자 비중 다소 낮음
- 주택 스톡 비교시, 스톡 많이 부족한 편, 우리나라 제외 주택스톡이 적은 편인 일본과 우리나라 소득수준별 주택스톡 비교시 우리나라 많이 부족
- ➔ 당분간 주택투자 급락 가능성 낮음

주요 선진국의 인구 천명당 주택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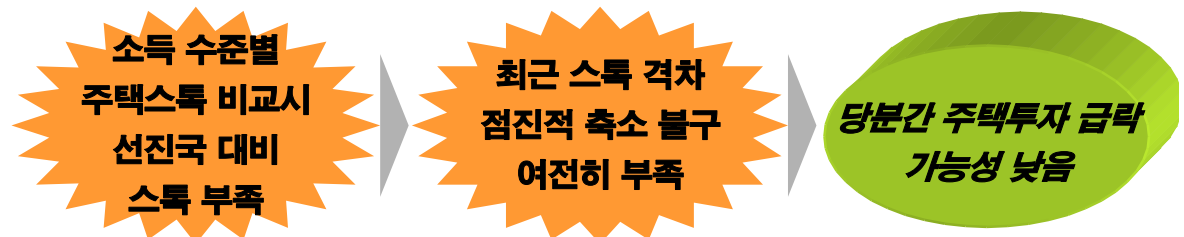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1980	143	316	387	387	435	412	410	390	436	388	343	349	382
1985	150	333	408	374	451	425	432	413	449	396	365	382	385
1990	172	355	426	390	471	425	454	440	464	404	393	415	407
1995	212	382	424	390	474	439	480	454	478	441	405	449	420
2000	249	407	424	418	479	467	505	462	490		416	482	430
2003	265	417	416	462	484	472		513	503		419	508	
2005	280		419										
2008	292												

주 : 각 나라별 인구센서스 자료(5년~10년 간격이며 기준연도가 각각 다름)에서 추정된 자료임

출처 : 주택통계편람(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주택 수), 통계청(인구센서스자료,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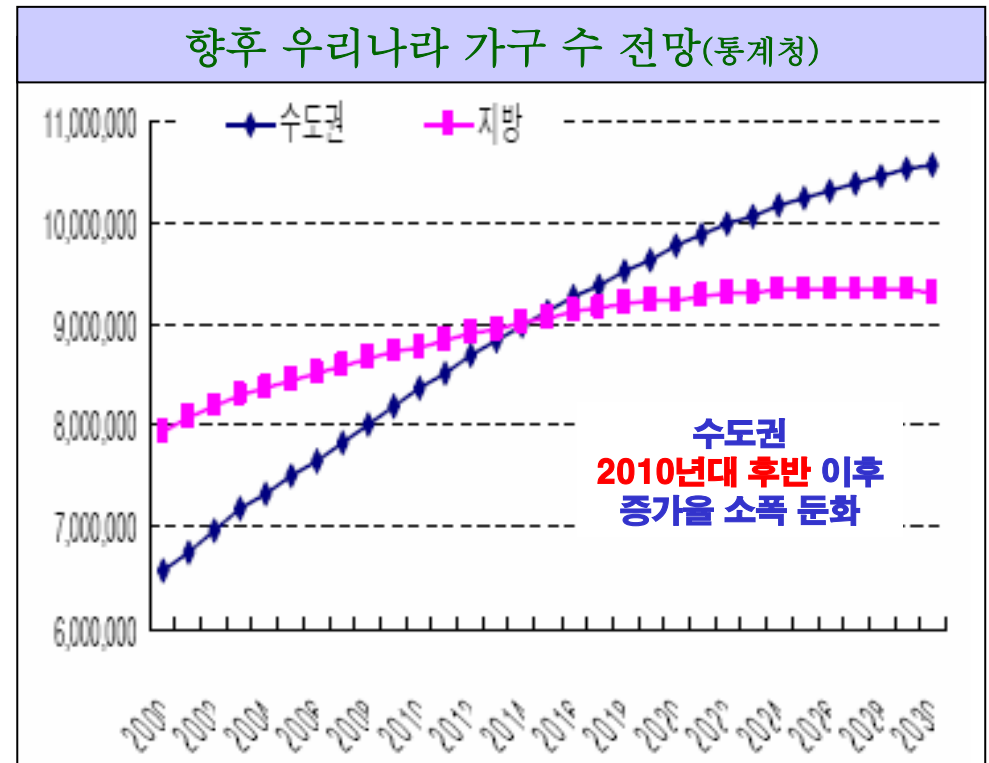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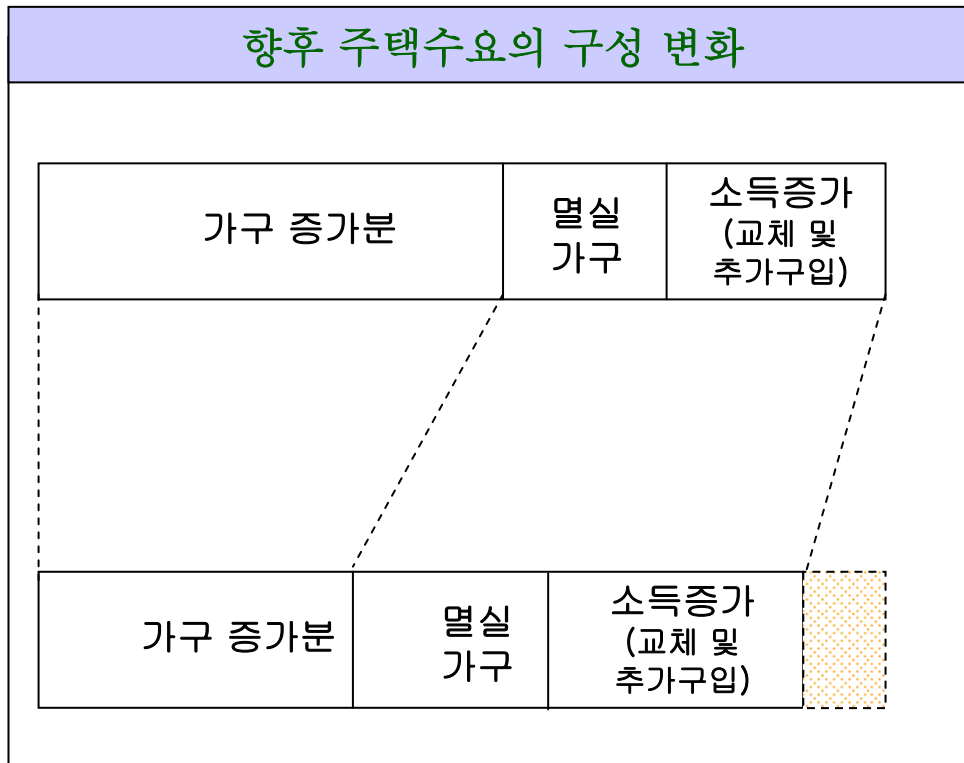
### 일본과 우리나라 소득 수준별 주택스톡 비교

구분	1인당 GDP 1만달러 도래시		1인당 GDP 2만달러 도래시		1인당 GDP 3만달러 도래시	
	년도	인구 천명당 주택 수	년도	인구 천명당 주택 수	년도	인구 천명당 주택 수
한국	2002	259	2007	285	2020	?
일본	1984	329	1987	341	1992	365
격차		70		56		?



## 인구/가구수 변화에 따른 향후 주택수요 변화

- 향후 가구수 증가분 점차 감소 → 향후 주택수요 점진적 감소(2010년대 중반 이후 수요 40만호 이하)
  - 지방 가구수 증가 : 현재도 증가분 매우 적음,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증가 정체**
  - 수도권 가구수 증가 : 지방과 달리 수도권 증가분 수요 양호. 단, **2010년대 후반 이후 증가 폭 소폭 둔화**
- 주택수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점진적 감소 → 201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속도 증가
- 수도권 35~54세, 2017년 이후 급격 감소(베이붐 세대 은퇴) → 수도권은 가구 증가분 수요 주로 1,2인 가구
  - 멸실 관련 정비사업 수요, 소득증가에 의한 수요 점진적 증대



## 향후 주택수요 및 정부 주택투자 계획

- 9.19대책에서 2018년까지 **지속 년 50만호** 의욕적 공급 계획 : 그만큼 주택수요 존재, 주택공급 필요 의미
- 2기 신도시 2011~2015년경까지 **지속 투자 양호** 전망(수주는 2010년부터 증가해 '12,13년경까지 인식 양호 예상)
  - 주택경기 위축, 택지미분양, 보금자리주택 등 영향 2기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 축소 가능
  - 2기 신도시 공급 일정 지연 예상
- **보금자리주택 2011~2015년경까지 투자 양호, 2018년까지 투자지속**(수주는 2010년부터 증가해 '13년경까지 인식 양호 예상)
- **당분간 뉴타운 비롯 재개발/재건축시장 양호**('09년 17조원→2010년 약20조원, 2011년 약30조원 시장 전망)

### <연도별 2기 신도시 주택분양계획>

자료: 국토해양부 (단위: 천호)

발표일자	총계	'07년까지	'08	'09	'10	'11	'12	'13년 이후
'08년 4월	622	63	24	78	149	116	97	48
'09년 4월	575	67	10	39	82	125	115	184
차이	-47	4	-14	-39	-67	9	18	100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계획년도	2009~18년	2009~12년
전체물량	150 만호 (분양70/임대80만)	'13년 이후보다 '09~12년 공급 집중
수도권	100 만호	60만호(Green belt에서 32만호; 매년 8만호)
지방	50 만호	지방미분양 해소 보면서 결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추이 (단위: 만호)

년도	2009	2010	2011	2012
전체	14.5	18	?	?
수도권	10.3	14 (보금자리지구 8만, 신도시·도심6만)	17~18	17~18
지방	4.2	4	?	?

- 당분간(2010년대 중후반까지) 주택투자 급락 가능성 낮음, '15년까지 양호
- 계획된 주택공급계획 이행시 OECD국가와의 주택투자 격차 완만히 축소 전망
- 2010년대 중후반 수도권도 주택 과부족 상태 해소



### 우리나라의 특성 고려 중장기 건설투자 변동 요인 요약

1

외환위기 직후 건설투자 비중,  
과도하게 위축

- 시설 스톡(Stock)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 위기로 인해 통상보다 과도하게 위축
- 당분간 건설투자 비중 감소 속도 조절 예상

2

SOC 및 주택 스톡  
OECD대비 부족

- 중기적으로 OECD국가와의 비중 격차 급격 축소  
가능성 낮음

3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택투자 보다  
SOC투자에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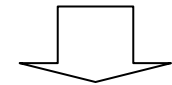
- 향후 GDP 대비 주택투자 비중 급격 축소 가능성은  
낮음

4

기타 주요 국책사업 투자계획,  
주택공급계획 중기적 양호

- 2010년대 중반까지 OECD국가와의 비중 격차 급격  
축소 가능성 낮음 : SOC 투자계획 2013년까지 양호,  
주택투자계획 2015년까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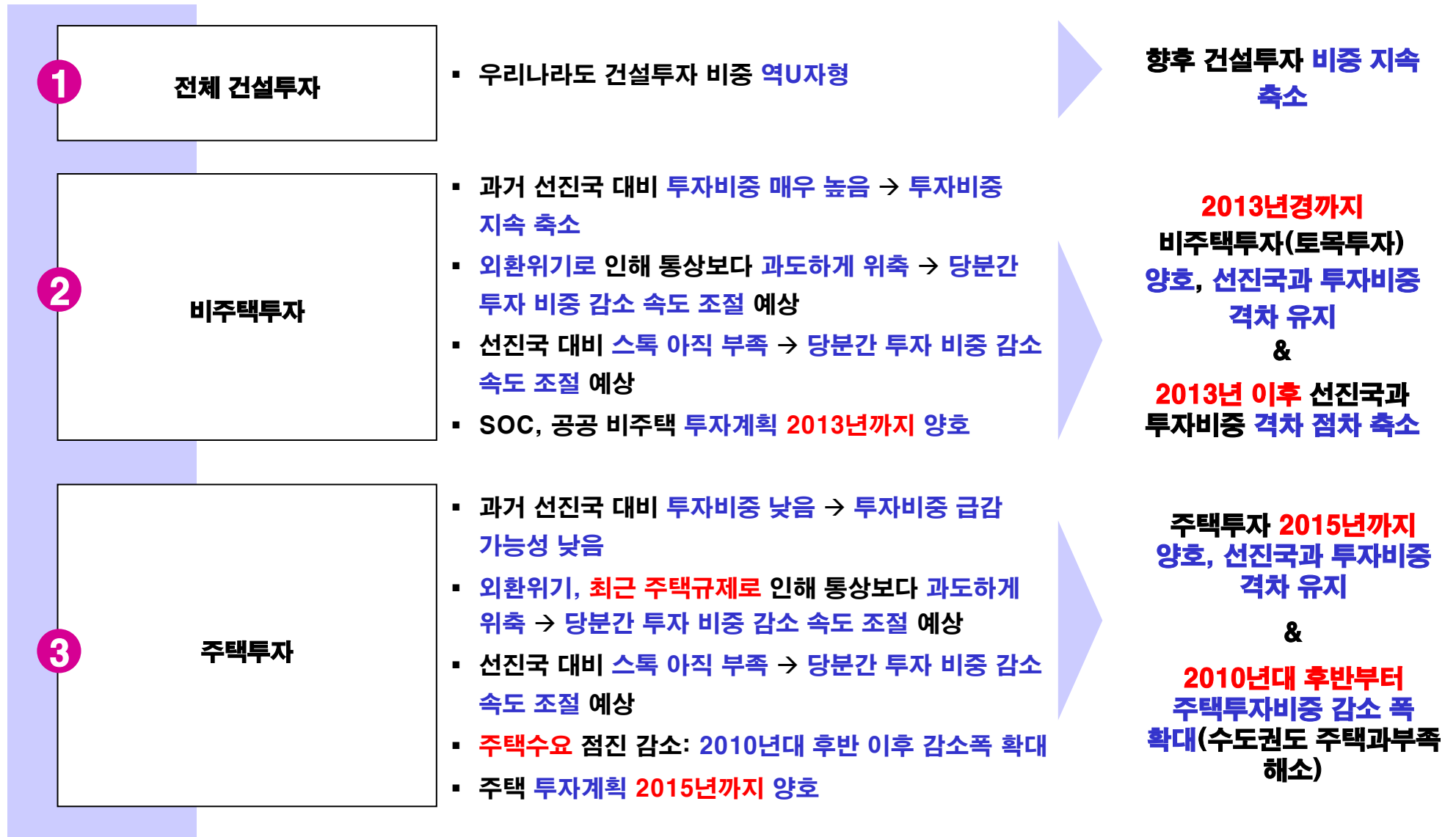
2015년 전후까지  
OECD국가와 비중  
격차 크게 축소 가능성  
낮음



2010년대  
중후반부터 OECD  
국가와 격차 축소  
예상

## 우리나라의 특성 고려 중장기 건설투자 변동 요인 요약

### 우리나라의 특성 고려 중장기 건설투자 변동 요인 요약



## 우리나라의 특성 고려를 통한 최종 전망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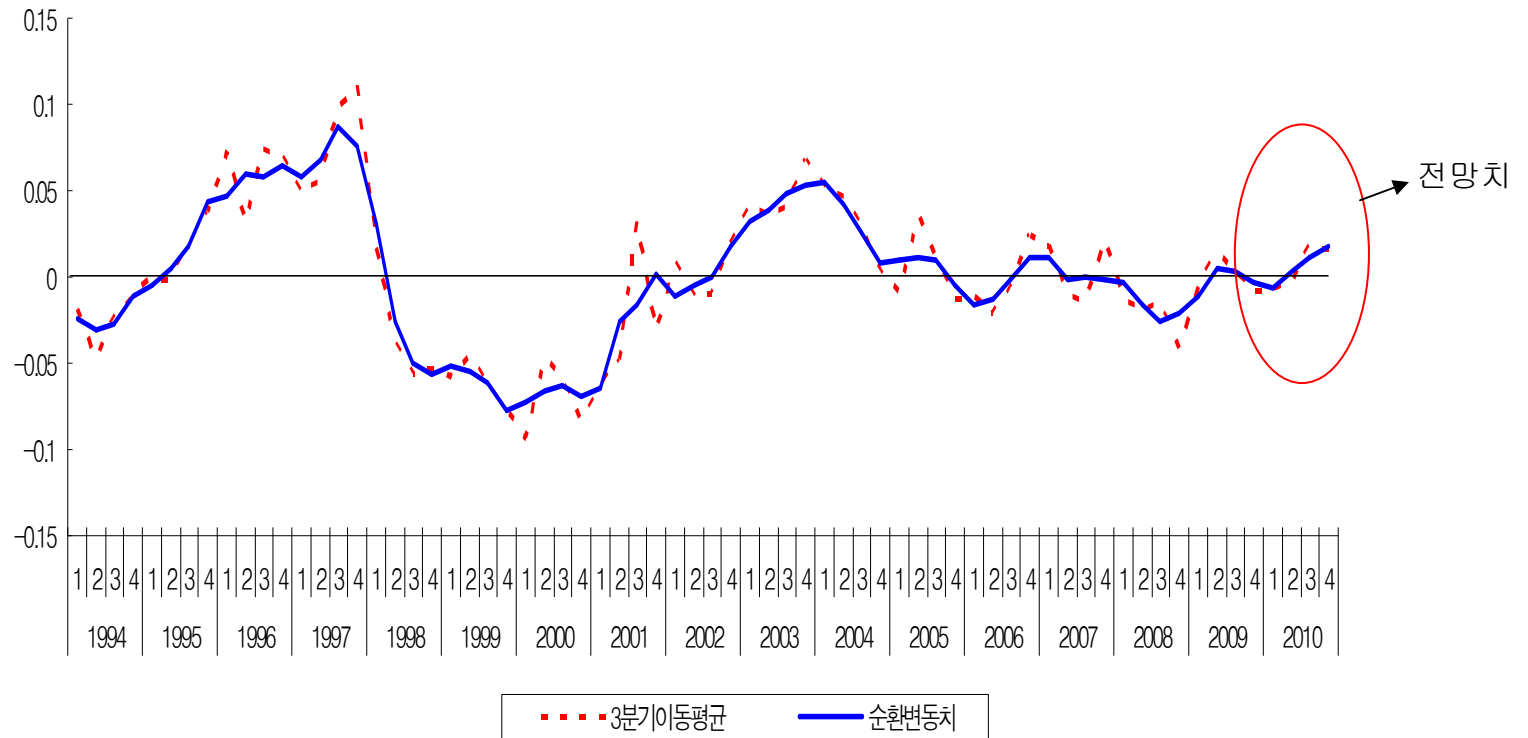
국내 건설투자의  
증장기 변화  
추이 전망

구분	2015년	2020년
GDP대건설투자비중	13.0 ~ 13.5%	11.0 ~ 11.5%
건설투자금액(2000년 불변금액 기준)	134.6 ~ 139.8조원	140.1 ~ 146.4조원
구분	2010 ~ 15년	2015 ~ 20년
건설투자연평균증가율	1.9 ~ 2.6%	0.8 ~ 1.7%

전망 결과의  
의 미

- 국내 건설산업 이미 성숙기 진입 : 향후 GDP대비 투자 비중 감소 지속
- 2010년대 중반까지(특히 2013년경까지) 국내 건설투자 다소 양호 예상
-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건설투자 성장 속도 둔화
- 2020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산업에 근접
- 단, 통일변수 존재 → 별도의 시나리오 플랜 필요

**국내 건설투자의  
순환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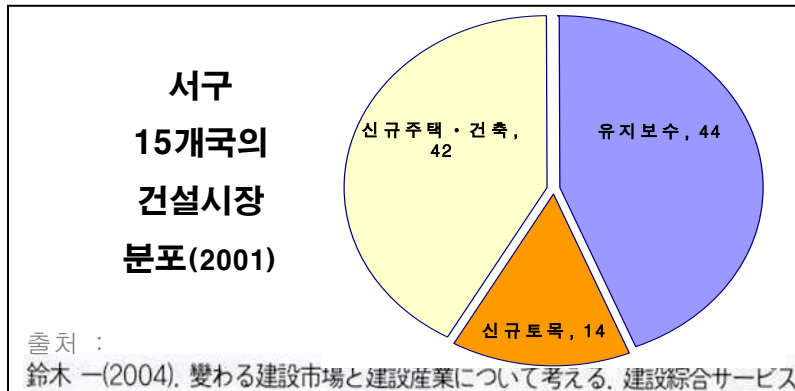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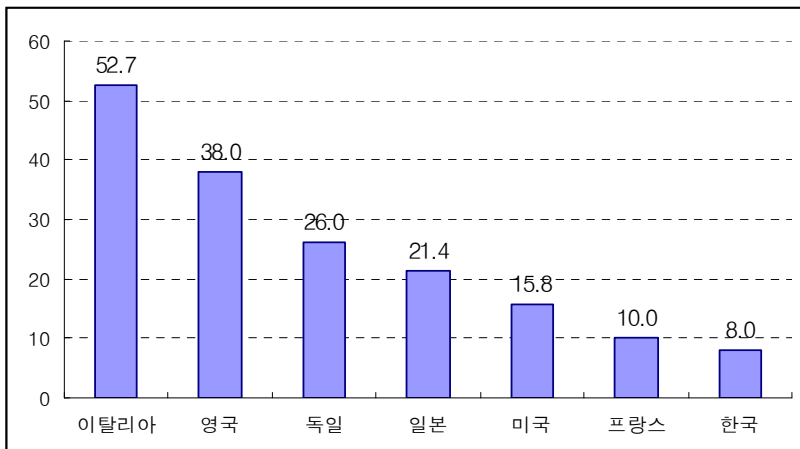
- 건설투자 순환주기 1순환에 대략 5~7년 소요
- 2009년 공공 토목투자 활성화, 하반기 이후 건축투자 소폭 회복세 →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저점 가능성 큰 상황
- 국내 건설투자 순환주기상으로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정도까지 완만한 상승국면 유지
- 2013년 상반기까지 기준선 위에 위치할 가능성 존재

## 전망의 시사점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국내 건설시장 Paradigm shift

- 2012,13년 이후 공공시장 출구 전략 필요 : 해외건설시장, 민자/공모형 PF, 재개발/재건축/도심재생, 리모델링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주택시장 공급 과부족 현상 어느 정도 해소 : 공급 위주 주택정책 → 주택수요 질적 다양화
- 2020년 전후 선진국형 시장으로 변화
  - 대규모 신도시 개발, 기본적 SOC 시설 확충 대신 도심재생, 주택 리모델링, SOC시설 보수/보강 등 유지보수 분야 증대
  - 주거다양화, 녹색빌딩, 초고층 빌딩, 대심도 철도/도로, 초고속 하이웨이/철도 등 신기술에 의한 니즈 충족 시장
  - 질적 SOC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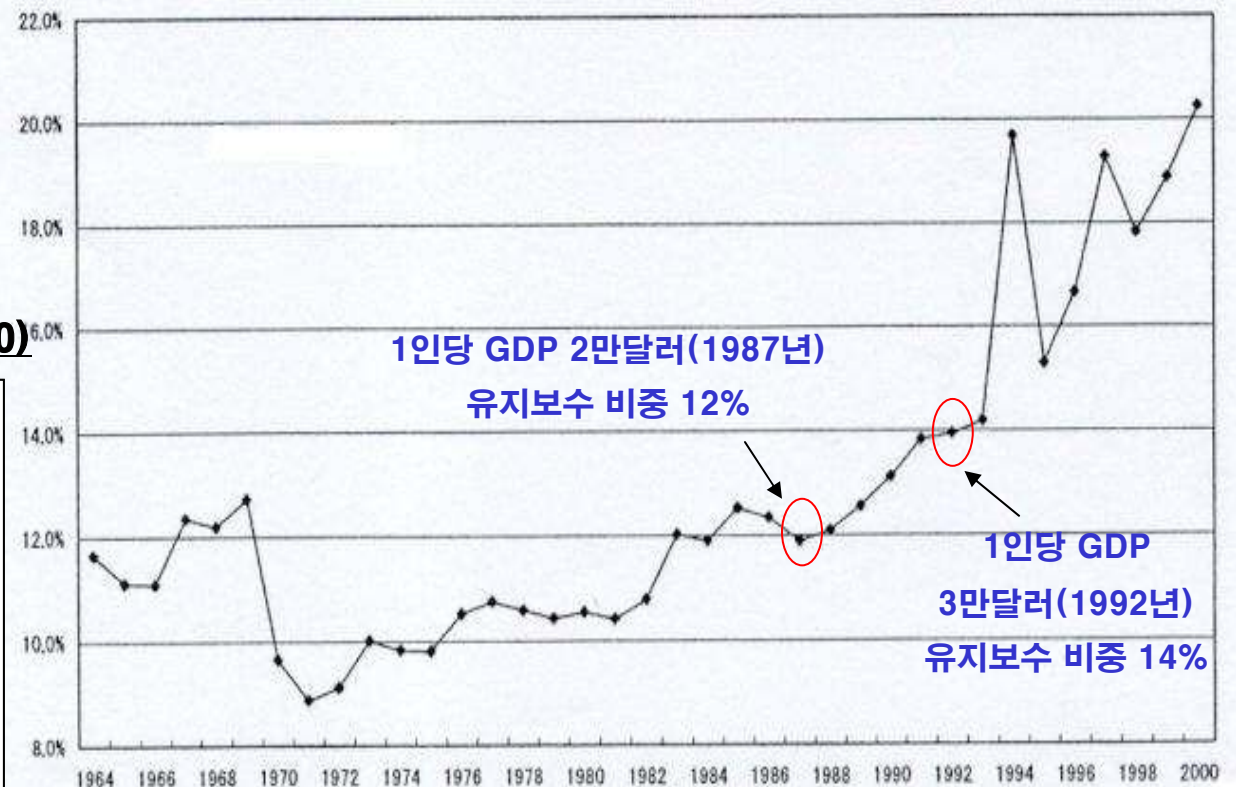


### 주요국가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 투자 비중(2000)



출처 : 건산연, 권오현, 건설저널 2002년 4월호 집중기획

### 일본 공공건설에서 유지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무통계' 각 년도

---

감사합니다